항공수요 둔화·고유가 기조 뚫은 'LCC 3인방'

〈제주항공·진에어·티웨이항공〉

지난달 수송객 증가율 소폭 상승
유가 하락에 가격 부담 줄어들 듯
경기변동 민감… 수익 전략 필요

제주항공 항공기. /제주항공

여객 수송객수 증가율이 감소세를 나타내며 항공수요가 둔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LCC(저비용항공사)들의 선방이 돋보이고 있다.

11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인천공항의 지난달 국제 여객 수송객수 증가율은 7.3%로 전달대비 3% 줄었으며 국제 화물 수송량 증가율은 -2.0%를 기록하며 하락했다.

대형항공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도 여객수 증가율에서 감소세를 나타냈다. 대한항공의 지난달 여객수 증가율은 3.5%로 전달 대비 5.6%포인트 떨어졌으며 아시아나항공은 -1.7%를 기록했다.

국가별로는 중국노선 수송객이 전달대비 2.2%포인트 상승하며 14.9%로 성장세를 이끌고 있는 반면 동남아(10.0%, 10월 14.9%), 일본(5.7%, 10월 9.2%), 유럽(10.3%, 10월 13.0%) 등 주요 노선의 성장률은 모두 둔화됐다. 미국 수송객수는 -12.3%를 나타내며 5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항공수요 둔화 속에서 LCC만은 선전했다. LCC의 지난달 수송객 증가율은 5.8%로 전달대비 0.4%포인트 소폭 상승했다. 국내선 점유율은 59.0%로 전달대비 1.7%포인트 올랐으며 국제선 점유율은 41.7%를 기록하며 전달대비 0.5%포인트 오르는 등 모두 개선됐다.

항공사별로는 제주항공이 10.0%로 10월과 마찬가지로 변함없는 노선 점유율을 유지했다. 5.3%의 점유율을 기록했던 티웨이항공은 5.8%로 반등했으며 진에어는 7.0%로 10월 7.2%에 비해 소폭 하락했다.

'LCC 3인방'들은 고유가 기조 속에서도 3분기 실적에서 '선방'하는 모습을 보였다.

제주항공은 3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5% 감소한 378억원을 기록했지만 같은 기간 매출은 3501억원으로 31.3% 늘었다. 영업이익률은 10.8%를 기록했다. 3분기 당기순이익은 311억원으로 지난해보다 3.7% 감소했지만 올 3분기까지 누적 기준 매출 9412억원, 영업이익 962억원, 당기순이익 838억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8% 이상 증가했다. 영업이익과 순이익도 각각 14%, 31% 증가했다.

진에어는 3분기 매출 2755억4000만원, 영업이익 256억5200만원을 기록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8.5%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18.4% 감소했다. 당기순이익은 186억6600만원으로 1년 전보다 22.6% 줄었다. 영업이익률은 9.3%를 기록했다.

진에어는 3분기까지 누적 기준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올해 1분기부터 3분기까지 누계 매출액은 7818억6100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1% 확대됐다. 3분기 누계 매출액은 850억1800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 증가했다. 3분기 누계 당기순이익도 599억7900만원으로 1년 전보다 4.1% 늘었다.

티웨이항공은 3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 256억원과 비교해 54.29% 감소한 117억원을 기록했지만 매출액은 지난해 3분기 1652억원보다 16.41% 증가한 1923억원, 당기순이익은 같은 기간 257억원보다 79.42% 감소한 53억원으로 집계됐다.

3분기 기준으로 티웨이항공의 실적은 큰 폭으로 감소했으나 누적 기준으로는 영업이익 594억원을 달성하며 지난해 3분기 누적 463억원보다 28.29% 늘었다. 누적 매출액도 5586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267억원과 비교해 30.9% 증가했다. 반면 누적 당기순이익은 같은 기간 460억원에서 6.86% 감소한 428억원을 기록했다.

최근 유가 하락으로 유류할증료 역시 인하될 것으로 보여 가격 인하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원가경쟁력과 부가매출을 통한 수익성 방어능력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한국항공대학교 경영학과 허희영 교수는 "항공수요는 경기변동에 민감하기 때문에 늘 불확실성을 띠고 있다"며 "유가를 비롯해서 변수가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수익을 유지할 수 있는 시장 전략을 제시하는 게 옳다"고 전했다.

/정연우 기자 ywj964@metroseoul.co.kr

주류 종량세 전환… 수제맥주 '4캔 만원' 시대 온다

국산 수제맥주 1000원 이상 낮아져
고급 수입맥주 10% 이상 저렴해질 듯

수제맥주도 '4캔 1만원' 시대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주류 종량세 전환의 후속 절차를 합의했기 때문이다.

종량세로 전환되면 소매점에서 4000~5000원에 판매되고 있는 국산 수제맥주(500㎖) 가격이 1000원 이상 낮아지고, 수제맥주가 4캔 1만원 판매 가능성이 높아진다. 수제맥주협회는 종량세로 바뀌면 국산 수제맥주 4캔 1만원 프로모션을 적극 지원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유명 수입맥주 브랜드들이 국내 생산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기획재정부는 내년 3월까지 연구용역 및 업계 협의를 거친 개편안을 내년 3월까지 제출하고, 정부는 즉시 4월 임시국회에서 종량세 전환을 합의하겠다고 밝혔다.

현 주세는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종가세 방식이다. 이에 국산 맥주와 수입 맥주의 과세표준이 달라 수입맥주에 붙는 세금이 더 낮은 기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에 국내 맥주는 가격 경쟁력을 잃고 산업공동화 현상까지 가속화되는 실정이었다. 2017년 기준 6년간 약 4200명의 일자리가 사라졌으며, 생산유발효과로 환산하면 당해 약 3600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현행 종가세를 적용해 국내 대기업 맥주 제조사들이 경쟁적으로 맥주를 수입한 결과, 2012년 대비 2017년 출고량 기준 수입맥주 점유율은 약 4.3배 증가했다. 대기업 3사의 2017년 생산시설 평균 가동률은 60%가 되지 않는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몇 년간 국내 맥주업계는 물론 국회 여야 의원들까지 나서 맥주 주세 체계 개정의 필요성을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특히 지난달 2일에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이 국산 맥주업계에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설계된 세금 체계를 개편하겠다는 내용의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교육세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그 결과 내년 4월까지 종량세 전환 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확정됐다.

종량세로 전환되면 국내 맥주 산업이 선진화되고, 소비자 후생까지 대폭 증대될 것으로 예측돼 업계와 소비자 기대감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종량세 적용 시 소매점에서 4000~5000원에 판매되는 수제맥주의 가격이 1000원 가량 낮아지는 것은물론, 국내에서 인기가 많은 고급 수입맥주 역시 최대 10%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소비자들이 구매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수입맥주 점유율 1위인 일본산 제품은 L당 117원 인하돼 최대 14% 세금이 하락하며, 아일랜드 맥주도 리터당 176원이 인하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수제맥주사 브루클린 브루어리가 국내에서 맥주를 생산할 것이라고 선언했다.또한 유명 수입맥주 브랜드들이 국내 생산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종가세에서는 국내 생산보다 본국에서 생산해 수출하는 것이 가격 경쟁력 확보에 유리하지만, 종량세 하에선 반대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국내 수입맥주 판매량 상위권을 차지하는 버드와이저, 스텔라 아르투아, 코로나 등의 브랜드도 국내 생산을 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2019년 맥주 종량세가 시행된다면 이에 따른 소비자 후생 및 경제효과도 큰 폭으로 증가한다. 글로벌 브랜드 현지 생산에 따라 더욱 합리적인 가격에 신선한 맥주를 마실 수 있게 된다. 또한, 2019년 말 수입맥주 예상 점유율 30%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7500개의 일자리 창출, 650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창출되어 국내외 주류 업계의 기대감이 증폭되고 있다.

/박인웅 기자 parkiu7854@

LG전자

가정용 맥주제조기 '홈브루' 내년 첫 선

LG전자가 가정용 맥주 제조기를 선보인다. LG전자는 11일 'LG 홈브루'를 공개했다. 내년 미국에서 열리는 CES 2019에서 대중에 처음 공개할 예정이다.

LG전자는 원료를 발효하는 핵심기술을 자체 개발해 홈브루에 탑재했다. 맥주를 제작하는 과정을 완전히 자동화했다.

홈브루는 캡슐과 물을 넣고 작동하면 발효와 숙성까지 2~3주 후 최고급 맥주를 생산한다. 생산량은 5 *l* 다.

제품 전면에는 디스플레이가 달려있어 맥주 제조 과정을 실시간 모니터링해준다. 스마트폰으로도 확인 가능하며, 앱을 이용해 캡슐도 간편하게 주문할 수 있다.

종류는 5가지다. 영국와 인도식 페일에일, 흑맥주, 밀맥주, 필스너 등이다. 세척은 자동온수살균세척시스템으로 가능하며, 방문케어서비스도 제공된다.

/김재웅 기자 juk@

정부, 5000억 IP투자펀드 조성… 中企 자금마련 쉬워진다

대출 취급 은행·가치평가 지원 확대

내년부터 부동산이나 신용도가 부족해 자금을 마련하기 어려웠던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은 지식재산(IP)을 통해 금융권에서 쉽게 자금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IP 담보·보증 대출을 활성화하고, 5000억원 규모의 IP투자 펀드를 조성해 2022년까지 IP금융 규모를 2조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금융위원회와 특허청은 1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지식재산(IP) 금융활성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지난 5월 동산금융활성화 추진전략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IP금융은 무형자산의 일종인 지식재산을 바탕으로 이뤄지는 금융거래를 말한다. 지난 1995년 68%였던 S&P 500 기업가치의 무형자산 비중은 지난 2015년 85%로 확대됐다. 노동 자본 등 유형자산보다 무형자산이 기업가치를 결정하고 성장을 주도하는 핵심요인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국내는 아직까지 유형자산이나 신용도에 기초한 금융관행으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은 자금조달이 곤란한 상황이다. 지난 17년 중소기업 금융이용 및 애로실태를 보면 중소기업의 금융기관 대출조건의 95.7%가 부동산담보 및 신용도 위주로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무형자산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에 IP기반의 자금조달을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먼저 IP담보·보증 대출을 취급하는 은행을 확대한다. 현재 산업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등 일부 은행만 IP담보대출을 취급하고 있지만, 내년에는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IP거래 활성화를 위해 5000억원 규모의 펀드도 조성한다. 모태펀드(특허계정)의 신규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다. 특허청은 투자대상을 특허권 중심에서 상표 디자인권까지 확대해 투자를 저해하는 규제를 사전에 개선하기로 했다.

IP금융을 이용하기 위한 가치평가체계도 구축된다. IP가치평가기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이 비싸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핵심 평가요소만으로 구성해 평가비용과 기간을 경감할 수 있도록 약식형 가치평가모델이 도입될 예정이다. 더 많은 중소기업이 IP금융을 통해 자금을 조달 받도록 특허청의 IP가치평가 지원도 확대한다. 이 밖에도 IP금융 확산을 위한 인프라를 마련할 계획이다. IP 금융이 일반적인 여신 관행으로 안착하도록 은행권의 취급 유인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고, 금융권 자체역량을 내재화하기 위해 IP 금융 전문인력 양성도 지원된다.

한편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지난해 3679억원이던 IP금융 규모를 2022년까지 2조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정부는 IP를 보유한 중소기업이 신용대출 대신 IP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5년간 약 500억 원의 이자비용을 절감될 것으로 내다봤다.

/나유리 기자 yul115@